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1. 17 ~ 2021. 2. 6 제240호



▲ 오만의 아이들. 제공: WMM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햇빛이 밝게 비치는 건물 마당에 아이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 여러 모양으로 수놓아진 동그런 모자 따끼야(Taqiyah)를 쓴 남자 아이들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손가락 브이(V)도 만들어본다. 히잡을 쓰고 있는 여자아이들도 하나, 둘 모여 들고 있는 모양이다.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으려는 것일까? 오만의 한 관광지

에서 만난 아이들에게서 오늘이 소풍을 생각하며 설레었을 그 들뜬 마음이 전해진다. 어젯밤 잠도 잘 잤을까?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 벅찬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범죄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주셨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

랑받을만한 짓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신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 최고의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시편 4:7) [GPNEWS]

다음 호는 2월 7일자로 발행됩니다

문정부 출범 이후 아동학대 사망 매년 급증... 4년간 총 41명

최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아동학대 치사로 총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2017년 5명, 2018년 7명에서 2019년에는 20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2020년 11월 기준 9명이 아동학대 치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영아(0세~만 2세) 학대치사는 송치 기준으로 2017년 3명, 2018년 6명, 2019년 15명, 2020년 11월 기준 4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검거 건수도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11월 기준 502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뿐 아니라 재학대 발생 건수도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27건이던 아동 재학대는 2019년 3431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전 정부 3년(2014~16)간 3858

건의 아동 재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 3년(2017~19)간 8134건으로 2.1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정인이 사건 발생(2010년 10월 13일) 3개월 만에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과문과 함께 다섯 가지 쇄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김 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 받는 체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경찰청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 학대혐의자 과거 진료기록 확인, 국가수사본부 중심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다섯 가지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치사 사건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능력대응 건수도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27건이던 아동 재학대는 2019년 3431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전 정부 3년(2014~16)간 3858

건의 아동 재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 3년(2017~19)간 8134건으로 2.1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정인이 사건 발생(2010년 10월 13일) 3개월 만에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과문과 함께 다섯 가지 쇄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김 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 받는 체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경찰청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 학대혐의자 과거 진료기록 확인, 국가수사본부 중심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다섯 가지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치사 사건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능력대응 건수도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27건이던 아동 재학대는 2019년 3431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전 정부 3년(2014~16)간 3858

건의 아동 재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 3년(2017~19)간 8134건으로 2.1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정인이 사건 발생(2010년 10월 13일) 3개월 만에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과문과 함께 다섯 가지 쇄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김 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 받는 체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경찰청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 학대혐의자 과거 진료기록 확인, 국가수사본부 중심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다섯 가지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치사 사건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능력대응 건수도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27건이던 아동 재학대는 2019년 3431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전 정부 3년(2014~16)간 3858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우리 사회에서 생명윤리와 가정



마음의 눈을 밝히사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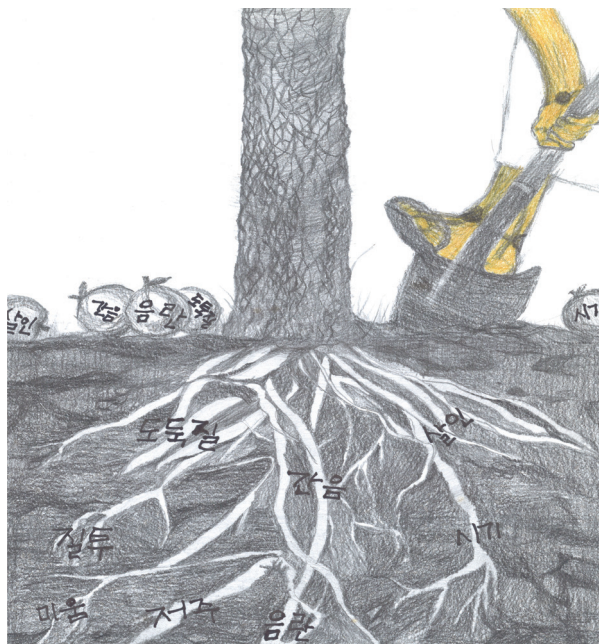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는 죄를 죄의 열매로만 봅니다. 나무로 비유해보면 그 나무에 죄의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아주 흉악하고 나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간음, 음란, 불순종, 도둑질, 살인, 폭력 등 죄를 무수히 지은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열매를 따 버리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뺐다고 침시다. 그다음에 죄의 열매가 또 안 맺힐까요? 그다음에는 더 충만하게 맺

힙니다. 그래서 죄는 열매로 볼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봐야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 죄의 열매가 단 하나라도 맺혔다면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나 죄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죄인은 존재 자체가 죄 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샅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므로 죄인의 운명은 사망입니다. 곧 죄와 하나 된 나의 운명이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끔찍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에 대하여 죽는 길, 죄의 심판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와 하나 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갈라디아서 2:20).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골로새서



일러스트=김경선

3:3) 영원한 지옥이 운명이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그래서 너희 ‘옛 사람’을 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았노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

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년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중앙아穆斯林 출신 기독교인, 장례도 어려워



▲ 성경을 읽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한 기독교인. 출처: OpenDoors 캡처

최근 오픈도어선교회는 중앙아시아의穆斯林 출신 기독교인(Muslim Based Believer, MBB)들이穆斯林들의 반대로 장례를 치르기도 어려운 상황을 전하며기도를 요청했다.

穆斯林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A국의 바티야르는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

은 마을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바티야르에게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종용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에게는 마을의 묘지를 사용하도록 내줄 수 없다, 이슬람으로 재개종을 하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바티야르는 이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3일 후 소천했다.

바티야르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 이슬람교사인 물라와 남자들이 와서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이 마을 공동묘지에 묻을 수 없다. 우리 종교를 떠나고 우리를 배신한 자는 우리 묘지를 더럽힌다. 다른 장소를 찾아라.” 그들은 바티야르의 시신이 놓인 유르트(몽골식 텐트)와 그의 집까지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기독교인 형제들은 그의 시신을 다른 마을로 옮겼다. 다른 마

을에서 기독교인들이 묘지로 사용하는 땅을 찾아 거기에 묘를 파기 시작했으나 끝마치기도 전에, 물라와穆斯林 사람들은 말과 트럭을 타고 와 소리치고 위협을 가했다. 가까스로 장례를 마쳤지만 물라가 바티야르의 어머니를 위협했고, 어머니가 기독교도인 며느리와 손주들과 같이 살기를 거부해 바티야르의 아내 바하르는 결국 그 마을을 떠나야 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B국 라심(58.가명) 목사는 2020년 9월 25일, 결핵으로 소천했다.穆斯林에서 개종한 MBB인 라심 목사는 도시에서 주로 마약·알코올 중독자들과 범죄자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섬겼다. 가족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의 묘가 있는穆斯林 공동묘지에 매장했으나, 현재 이맘과穆斯林들이 묘를 다시 파내고 시신을 가져갈 것을 요구한 상태다.

[GPNEWS]

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율 6.7%… 방역 잘하고 있는 증거

지난해 코로나19 감염경로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관련 확진율이 6.7%에 그쳤으며, 이에 대한 의료 전문가는 이는 한국교회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 증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기독교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해 12월 31일에 발표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만 470명이다. 코로나19 감염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총 1만 5595명(26.1%)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적 산발 감염은 1만 612명(17%), 감염경로 불분명은 7932명(13%), 해외유입은 5605명(9%)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천지 관련은 5213명(8.7%),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종교단체는 4059명(6.7%)으로 조사됐다. 교회 관련 확진자만 따지

면, 앞서 모든 종교단체를 합산한 수치인 6.7%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요양병원 시설은 5410명(6%), 직장 콜센터 등은 3211명(5%), 가족 지인 모임관련은 2833명(5%)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단체발 확진자’가 전체 감염경로 중 6.7%에 그쳤음에도 방역당국과 언론이 교회를 코로나19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학을 전공한 김동욱 전문의(청주향도외과 원장)는 “한국에서 전체 개신교 인구 비율이 약 15% 정도인데, 그러면 교회발 확진자는 동일하게 15% 정도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일본 통계에서 6%대에 그쳤다는 건 교회가 그만큼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10~11월까지 주요 언론 매체에서 ‘교회발 감염’이라는 기

사제목을 검색해본 결과, 언론보도의 60~70%가 교회라고 기사화됐다. 사람들 인식 속에 ‘교회를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각인시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경로에서 여러 계층과 집단이 섞여 있어서 병에 취약한 집단, 연령, 계층 등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객관적 수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였던 31번 환자는 3차 감염환자였다. 그 때부터 N차 감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초기에 중국인 입국자를 막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대만도 확산 초기에 중국인 입국자를 막아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한국이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GPNEWS]

헤브론선교대학교 2021학년 신입생 모집

헤브론선교대학교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로 선교적 삶에 대한 부

르심이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대상자들이다. 2차 입학설명회는 2021년 1월 30일(토)이며, 입학설명

회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 010-2772-4641 [GPNEWS]

복음과기도미디어 5기 미디어선교사 모집

본지를 발행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가 문서와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선교사학교 제5기 훈

련생을 모집한다. 복음학교를 수료한 자로 미디어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2월 20일까지. 문의 ☎ 010-6326-4641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낙태 건수, 약 4260만 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약 4200만 건의 낙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염병 사망자 수인 1300만 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라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5일 보도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의하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낙태 건수는 4260만 건이 넘었다. 한편 낙태를 제외한 2020년 전 세계 사망자 수는 5900만 명이였다.

주님, 자신의 욕망에 의해 태아를 죽이는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반면, 낙태로 인해 죽는 생명이 더 많음에도 낙태를 옹호하는 모순을 용서해주십시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인도, 개종금지법 위반으로 한국인 1명, 현지인 3명 수감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구호 식량을 제공한 것을 두고 개종금지법 위반이 적용돼 한국인 1명을 포함한 4명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라고 뱀티스트 프레스가 5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지인인 라즈 쿠마리 마시르는 “이번 체포가 조작되었으며,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계획된 음모”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도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체포된 자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도의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때까지 더욱 선한 일에 통로가 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계, “예배 자유 선포한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 적극 지지”

‘교회 폐쇄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설교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해, 한국 기독교계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은 7일 오전 부산 송정동 세계로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방역당국의 불공정·불평등·불법 지시에도 대의를 위해 순응해 왔다.”며 “그러나 당국은 유독 교회만을 코로나19 발원지인 온상지처럼 집요하게 침소봉대와 통제·압제하며 공격했다.”고 지적하며 세계로교회의 예배 회복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한국교회를 축복해주시고, 방역을 위해 많이 모이지 못하면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이게 하셔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1월 18일 ~ 2월 6일

1월 18일 ~ 1월 23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1.18(10시)~19(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1.21(0시)~22(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1.22~23(09-21시) ▶전북 전주 / 주소방교회(최**)010-4661-4039, 1.23(0-24시) ▶제주 조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그 외 8교회 진행중.

1월 25일 ~ 1월 30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25~29(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25~30(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26(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29(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29(10시)~30(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1.29(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2교회 진행중.

2월 1일 ~ 2월 6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2.1(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2.1~5(10-20시) ▶전북 전주 / 주를따르는교회(김**)010-4743-9397, 2.4(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2.4(05~17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2.5(13~24시) ▶경남 김해 / 함께지어져가는교회(이**)010-5598-5583, 2.5(12시)~6(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7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근현대(5)

마지막까지 북한 땅을 지킨 그리스도인 조만식

우리는 지금 이념의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으로 혼돈스러운 시대 한복판에 서 있다. 우리는 이때 누구를,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성경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조를 통해 이 땅을 이끌어 오셨다. 이때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가 걸었던 그 걸음을 통해 시행착오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바를 얻을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지 월드뷰 2021년 1월호는 지금 우리가 주목할 선각자 가운데, 해방 직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한 그리스도인 고당 조만식(1883-1950)을 제시하고 있다.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교수, 교회사)가 집필한 기고문을 재구성, 혼란스런 이때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성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서북지방 평안남도 강서에서 1883년에 태어난 조만식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특히 그의 진가는 해방 이후에 드러났다. 당시 남한에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 정당을 만들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북한에는 오직 한 사람 조만식 장로가 존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만식의 제자였던 함석헌은 “하나님이 이북은 다섯 도를 조만식 한 사람에게 맡으라고 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거대했다.

해방 직후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진주(眞主)한 소련은 조만식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따라 준다면 대통령 직을 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가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아님을 알고 거절했다. 결국 조만식은 1946년 1월 평양 고려호텔에 연금되어 있다가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유엔군의 반격으로 퇴각을 하던 공산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격동기에 유년시절을 보낸 그는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이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사라지면서 당시의 많은 지식인이 그러했듯 서당을 그만뒀다. 그리고 그는 평양에 가서 장사꾼의 길을 선택했다. 어느 정도 장사에 성공하면서 술과 노름에 빠졌던 그는 1904년 러일전쟁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동료 장사꾼 한정교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던 그는 1905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물을 배울 것을

결단하고 송실학교에 입학했다.

송실학교 교장 베어드 선교사로 부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으며, 그는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 일본 패망의 소식을 듣고는 바로 뒷산으로 올라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소련군 환영대회서, “조선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

해방 이후 소련군이 그를 회유하기 위해 초대 한 요리집에서 그는 술을 권할 때마다 자신이 기독교 장로라는 이유로 분명하게 거절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임을 밝힌 그는 1945년 10월 14일 평양 공설 운동장에서 진행된 소련군 환영대회에서도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다. 김일성은 입이 마르도록 소련군을 찬양했지만, 조만식은 오늘의 해방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조선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선이 독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만식을 오늘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조만식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남은 신앙인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소련군이 진주, 전 국토를 공산주의 식으로 개조하던 시기에 북한에 거주하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월남했다. 북한 공산정권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부터 개인 토지를 무상 몰수하며, 개인의 사유 재산을 국유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횡포에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고향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만식에게 월남(越南)을 권유했다. 그는 자신마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북한에 김일성을 견제할 사람이 없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북한을 통째로 공산당에게 바치는 것과 같다고 여기며, 북에 남아 있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그는 온몸으로 북한의 공산화를 막았다.

둘째, 수많은 기독교 독립 운동가들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렸지만, 조만식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하며 시작된 한국선교를 통해 많은 선각자들이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에 있다고 여겨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 소설가 춘원 이광수,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동휘,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여운형 등이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점차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나며 기독교 신앙을 떠났다. 그러

나 3.1운동 이후 오산을 떠나 평양 산정현교회의 장로가 된 조만식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셋째, 조만식은 다음세대를 세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하나였던 남강 이승훈이 도산 안창호의 영향을 받아 세운 오산학교에서 그는 교사로 나중에는 교장으로 봉직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가르쳤다. 또 평양에서 송인상업학교를 세우고, 조선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 조선에 대학을 만들 수 있다는 일본의 정책 전환을 보며,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일본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처럼 당시 미국 등지에서는 외교를 통한 독립을 펼치고, 중국에서는 일본군과 마주 싸우며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했지만, 그는 국내에서 실력을 가진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것으로 독립을 준비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해 ‘미국과 손 잡아야’

넷째,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유민주주의임을 믿고 실천했다. 그는 선교사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웠고, 일본 유학시절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 민주주의)’라는 근대교육을 경험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분명하게 경험하며, 개인의 자유, 소유권



▲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 중 한 사람 조만식 장로. 출처: 고당 조만식 기념사업회 캡처

의 확립, 종교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했다. 그는 해방 이후 한반도의 통일과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 소련이며, 그들의 공산주의와 그들의 대리인 김일성이라고 생각했다. 해방 후 북한에 있었지만 그는 남한의 미 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해방 이후, 일본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에 수백만 명의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데 조선에서 일본인을 박해한다면 동일하게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박해를 당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맹목적인 반일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자본주의의 병폐도 간파해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혼란한 시대는 옛 일을 잊고, 과

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 때 맞게 된다. 사사기 2장 10절은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며 불행의 원인을 밝힌다. 그리고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며”, 그 결과,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맞게 된다. 오늘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오늘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방향이다. [GPNEWS] 김갈렘

프랭클린 그래함, ‘성별’ 언어 금지 하원 규칙안은 하나님 권위 부정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최근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성별’을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안을 제안한데 대해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그래함 목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제임스 맥커번 민주당 의원이 성별을 포함한 언어 사용을 중단하고 성중립 표현으로 대체하는 규칙을 정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성별을 포함한 언어 사용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창조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그분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progressive)라는 이름을 주장하는 자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용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나라는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에 반대표를 던지기를 원한다. 사실을 의회 대표에게 알리라.”고 밝혔다.

하원이 제정한 규칙 안에는 ‘그’와 ‘그녀’를 ‘의원’, ‘대표(delegate)’, ‘그들(they)’ 등으로 바꾼다고 명시돼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로, ‘형제’나 ‘자매’는 성 중립적인 ‘sibling(형제자매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 역시 규칙안이 공개된 날 자신의 SNS에 “아버지, 아들, 형

제로서’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이 규정)이 어리석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3일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의원(민주당, 전 캔사스시티 주지사)은 117대 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개회기회에서 “우리는 유일신교적인 하나님인 브라마(Brahma)와 많은 다른 신앙들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god)’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며 “아멘과 아우먼(amen and awoman)”이라고 기도를 마쳐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아멘은 ‘그러할 지어다(so be it)’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성별 용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반면, 아우먼은 아멘의 여성적 버전으로 알려져 있다.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47)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켈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찰스 다윈은 목사가 되려고 성경 대학을 졸업한 후, 당시 영국에 있었던 곤충 알레르기 연구를 위해 곤충 표본을 채집하려고 5년 동안 세계를 여행했다. 그는 성경을 포함해 책 몇 권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는 '지질학 개론'도 있었다. 다윈은 그 책이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불신앙이 천천히 나를 엄습했지만 나는 전혀 고민되지 않았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 14가지의 다양한 핀치 새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핀치 새는 조그마한 부리를 가진 작은 새다. 그가 만난 새들은 부리모양이 모두 달랐다. 그 새에 대해 연구한 다윈은 "건조한 해에는 부리가 0.1mm 더 두꺼워지고

습한 해에는 0.1mm 더 얇아진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부리는 항상 평균으로 돌아온다. 더욱이 다윈은 "이 새들에게 공통 조상이 있었을 것 같다. 아마 이것이 새와 바나나가 연관되었다는 증거일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170쪽에는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진실로 놀라운 사실"이라고 적혀있다. 이것은 새와 바나나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거짓말이다.

다윈은 소위 '소진화(micro-evolution, 小進化)'라고 불리는 것을 관찰했다. 소진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진화로, 예를 들어 개가 다양한 개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견 사실이다. 장미도 다양한 장미를 생산한다. 아무도 이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다. 큰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매년 개가 나온다. 아마 개, 늑대, 코요테가 공

통 조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개는 늑대로부터 나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나오게 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성경의 첫장에서만 10번이나 나와 있다.

진화론에는 6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우주적 진화로 빅뱅 같은 것을 가리킨다. 둘째로 화학적 진화가 있는데 모든 원소가 수소에서 나온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셋째는 별의 진화로 모든 별들이 먼지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먼지를 단단한 별로 응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일의 기체 법칙에 의하면, 오히려 먼지를 날려 보내게 된다. 그러나 현재, 각 사람이 11조 개의 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다. 넷째로 생물이 무생물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유기적 진화가 있다. 다섯째는 대진화로, 동물이 다른 종류의 동물로 변한다는 주장이지만 그런 것은 단 하나도 관찰된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같은 종류 안에서 다양화인 '소진화'이다. 이것



▲ 성경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10번이나 나온다.

은 관찰 가능한 사실이다.

처음 다섯 가지는 종교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고 믿는 것뿐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그들은 정의를 바꿔버린다.

"진화는 살아있는 것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을 주의해서 봐야 한다. 그들은 처음 네 가지를 마치 이론의 일부가 아닌 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진화는 시간에 따른 종의 변화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은 맞다. 종은 변화할 수 있고, 다양한 이상한 동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여전히 같은 종류다.

그들은 여섯 번째 예만 보여 주

고. 전체 이론이 증명되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고 한다. 세뇌당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대진화는 단지 소진화가 오랜 기간을 걸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양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농부들은 더 큰 돼지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그렇다면 그들이 언젠가는 텍사스만큼 큰 돼지를 얻게 될까? 그렇지 않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바퀴벌레들은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언젠가는 망치에 대한 내성을 가질 수는 없다. <계속> [GPNEWS]



선교 통신

민주콩고, 성경 소유한 성도 20% 미만... 목사도 성경일독 못해봐

콩고민주공화국의 고마시에도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권고, 대규모 모임에서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캠페인 문구는 방송에서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00명 중에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1~2명 정도로 코로나에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코로나와 증세가 매우 흡사한 말라리아에 면역성이 생긴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한 것은, 육로로 국경을 넘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고마로 들어오는 항공길이 열려 외부 출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파송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붙들고 이곳 고마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던 여러 지역교회에서 말씀과



▲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교회 주일 예배 © 복음기도신문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교파를 넘어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만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성도들과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책을 만드는 곳이 없어서, 성경을 소유한 성도도 전체 교우의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경보급과 함께 성경읽기를 강조하며 '하나님 사랑은 곧 말씀 사랑'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은 목회를 42년 했다는 목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아직도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벽에 부딪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땅에서 이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보급과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목양을 감당하고 있는 30명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10명의 성경교사들과 함께 4일간의 복음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세미나는 한국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곳은 준비하는 사람이 모든 경비를 제공해야 하고, 마치고 돌아갈 때는 선물도 챙겨줘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익숙한 그들의 삶에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는 제공하지만, 아침부터 오후까지 말씀 앞에서기를 약속하고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참석한 40명의 목회자들 중 성경을 일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즉,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대로, 또는 들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천주교 교리와의 혼합,

은사주의 목회, 물질적 축복의 메시지, 극심한 찬양과 자기몰입을 성령의 임재로 혼동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시 119:130)라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목사가 강의 후 찾아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었기에 거룩한 존재인 줄 알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곧 죄요, 죄가 곧 나임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내게 일어난 일임을 불붙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다른 수많은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진리로 결론을 삼는 믿음, 생명의 근본이신 말씀만 붙드는 결단, 즉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십자가 증인으로 살도록 기도의 응원을 바랍니다. [GPNEWS]

콩고민주공화국 고마=윤성운·김경희 선교사



복음의 능력

마음에서 세상을 버리라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증거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격렬하고 무지막지한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곳에 가 보면 뒷주머니에 신약성경을 꽂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눈에 띈다. 그들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 몸으로는 세상을 버렸지만, 마음으로는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겉모양으로는 세상을 버렸지만, 내면은 여전히 세속적이다. 하지만 세상을 버리기 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자신의 행위에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으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 [GP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토저.2015)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된 고난, 기도의 자리에서 영광을”

주님 오실 길을 기도로 준비하는 전인숙 강도사(양산교회)



© 복음기도신문

눈발이 흩날리던 날, 전인숙 강도사를 만나러 경남 양산으로 향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전 강도사의 보금자리 한 가운데에는 세계지도와 기도정보들이 놓인 기도책상이 있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고백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조용한 시골집에 오니 왠지 옛날 이야기를 들어야할 것 같네요. 강도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릴 때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딸만 셋을 낳으셨어요. 그 시대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셨어요. 제가 6살 때 새엄마를 맞이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의 손발이 되어 엄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좋게 말하면 순종인데 맹목적인 삶이었어요. 덕분에 사랑과 인정을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인숙이 좀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았고 계

데 거기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가 18살이었어요. 결혼이 뭔지, 연애가 뭔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19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시집살이가 쉽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무서웠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남편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도 낳았지만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허전했어요.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허전했어요

-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으셨네요. 어려움은 어떻게 견디셨어요?

“첫 아이를 낳고 2년 후에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얼마 안 있어서 집도 사게 됐어요. 그때 집을 팔던 사람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 나가면 집을 좀 싸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교회 나오라는 말이 싫었어요. 그러다 다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믿어지면서 교회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친정도, 시댁도 모두 불교에, 제가

에 가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베개 속에 있는 부적을 다 꺼내서 불태웠어요. 순간 두려웠는데,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부적을 다 태우고 1985년 1월 7일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어요.”

- 교회에 처음 가서서 어떠셨어요? “그때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나서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가라는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서 자명종도 없이 1년 동안 새벽기도에 나갔어요. 너무 사모하니까 4시에 눈을 떠 새벽기도 시간도 되기 전에 교회에 갔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아이 3명을 데리고 앉아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간 교회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 부근 몰래 교회를 다니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남편은 제가 예수를 믿자마자 핍박을 했어요. ‘예수만 포기해라. 자기만 믿고 살아라. 그러면 손에 물안 묻히게 하고 공주처럼 받들며 살겠다.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주님이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때로는 맞기도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공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교회에 갔어요. ‘맛아 죽더라도 가자.’고 생각했어요. 핍박을 많이 받은 날이면 찬양이나 말씀으로 위로 해주셔서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상황과 환경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 많이 힘드셨겠네요.

“성경 10여 권이 찢어지고 불태워지니까 남편을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항아리 속에 넣고, 신발은 들고 나가서 대문 밖에서 신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책을 집에 하나도 둘 수가 없었어요. 교회 갔다 오면 모두 찢겨 있으니 까 치워야 됐죠. 설거지통에 성경을 던져 넣어 버리면 주님께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때리냐고 반문도 못했어요. 남편이 핍박하면 주님이 마음의 음성으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주님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항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핍박을 그대로 받았어요.”

- 이런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은 날부터 고난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신 것 같아요.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예수 믿고 6개월부터 심방을 따라다니고, 1년 만에 집사 직분을 받고, 모든 영역을 섬겼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 같다고 말하면 싫지 않았지만 업무를 못했어요. 핍박이 심하니까요. 그러다 예수 믿은 지 7년 정도 지났을 때, 신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어요. 남편 핍박도 심하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마음을 주셔서 3가지를 기도했어요. ‘학비를 책임져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하나라도 팔리게 해주세요.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신앙생활로 인해 핍박이 극심했지만...

- 놀랍네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신학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책을 감추고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다 6개월 만에 들켜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내가 벌어진 돈으로 이런 공부를 하나면서요. 그런데 결국엔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학비를 공급해주시고, 장학금도 받게 하시면서 신학을 마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작은 것을 팔게 하셔서 남편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하셨어요. 놀라운 건 남편이 저를 교회에 차로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는 들어오지 않고 차에서 기다렸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네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왜 집사님은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못 받냐. 남편을 왜 구원 못 시키냐. 나한테 잘못된 믿음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그냥 듣고서 교회 지하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네. 믿

죠.’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요.”

- 주님이 기도를 모두 응답해주셨네요. 이제 그럼 고난이 끝이 난 건가요?

“아니요, 이후로 가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시간도 있었고, 남편과 저, 자녀들까지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지옥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교회에 나가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인생의 실패잔데 뭐가 존귀하냐고,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하면서 돌아왔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너무 컸죠. 그럴 때 아들이 복음학교를 다녀오더니 제게도 소개해줬어요. 복음학교에 참석하고 수많은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마치 하나만을 위한 복음학교 같았어요. 진리가 내 영혼에 비취지니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더군요.”

- 복음학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가 궁금하네요.

“그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모두 어머니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존재적 죄인이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내 영이 사랑에 대해 죽어있었다는 것도 보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인격적 관계를 못 가져봤어요. 아버지는 바라만 보는 존재였고 부녀간 정상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었어요. 모녀관계도 마찬가지였고, 사랑이란 것을 몰랐어요. 결혼을 하고 남편과 자식이 다 있었어도, 노을이 지면 나도 알 수 없는 고독함, 외로움, 슬픔, 고통, 아픔과 쓸쓸함이 엄습할 때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용기가 없어 자살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학교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 이것이 다 없어졌어요.”

-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동안의 과정은 잠깐 허용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6면에 계속)



▲ 전인숙 강도사의 기도책상 앞에 빼곡히 붙여진 기도편지와 말씀들. © 복음기도신문

속 듣고 싶었어요. 저는 늘 학교가기 전에 밥을 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고 학교 갔다 오면 동생들을 돌봤어요.”

- 학교를 다니면서 살림을 하신 거군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중학교 때까지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지만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다녔어요. 공부는 더 하고 싶지만 전혀 자식은 공부하는 게 더 허락이 안됐어요. 그래서 목재 공장에 취업했어요. 큰 나무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들이었는데 묵묵히 일하면서 월급을 모두 엄마에게 갖다 드렸어요. 1년 정도 후에 아버지가 주산을 배우게 해주셔서 사무직으로 옮겼는

종갓집 만머느리다보니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꿈에 흰 옷을 입은 분이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남편과 내 손을 잡고, 물고기 모양을 그리더니 사라지셨어요. 이 분이 예수님이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 이런 이야기는 무슬림권에서 많이 듣는 얘긴데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마침 저를 전도했던 사람이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울었어요. 이후 교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5)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다.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눈으로 자주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것 같고 믿지 못할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도, 걱정하지 말고, 계수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길목에서 처절한 절망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다 빨뿔이 도망쳤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실패였다. 마지막 남았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슬퍼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찾

아다니셨다. 주님은 숫자나 열매에 관심이 없으시다. 주님은 한번 사랑하셔서 부르신 당신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복음에 운명 건 자들의 순종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다. 주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셨고 2000년 역사의 온 세계를 돌아 오늘 우리가 열매가 되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충분히 두려운 이유가 있고, 마음이 얼마나 낙담 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주님은 아신다. 더 이상은 추스를 수 없을 만큼 맥이 풀리고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그



일러스트=이예원

때에도 주님은 아신다. 풍랑을 잠잠하라고 명하시는 전능한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유 따지지 말고 열매를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도 된다.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불렀던 주님을

기억하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하시고 불러내셨는지를. 얼마나 불가능한 가운데서 내 마음 중심을 돌이키사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본능적으로 그 더러운 죄, 온통 죄에 끌려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경건의 열망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기적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끝까지 믿으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2018년 3월) <끝>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복음 마스크 출시

고철의 봉제선 없는 3D설계로 세련된 디자인, 빨아쓸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피부에 자극이 없는 100% 국내 항균원단과 제조기술은 기본입니다!

*로고변경, 단체구입 문의가능

야킨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복음기도총서2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시간

김용의 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킨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순종

알게 되니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어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여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 복음을 통해 회복이 일어난 거군요. 감사하네요.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3절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복음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이 일을 위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24·365기도에 동참하면서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싶어 새벽 3시로 기도시간을 정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순종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기뻐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2016 경건의 열망 집회 때 기도하고 있는 전인숙 강도사. ©복음기도신문



주방을 섬기며 두 달에 성경 일독하는 은혜 누리다

믿음의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헤브론신학교대학에서 생활하면서 이번 학기에는 주방을 섬겼다. 6개월 동안은 하루에 몇 번씩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가야 했다. 처음 주방 직임을 맡았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 매 끼니마다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의 식사 준비와 마무리, 정리를 하고 비는 시간에는 재료 준비를 하는 게 힘들었다. 잠이 모자라서 신경이 민감해지고 짜증이 났다. 군대시절 잠 안 자고 훈련받던 때가 생각났다. 그래도 군대는 일주일 훈련하면 그 다음 주는 쉬는데 이곳은 6개월을 연속으로 해야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내가 이 사역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잠이 부족해 신경이 민감해져 짜증이 나는 것을 해결해 달라

고 구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셨는지 2주가 지나니 몸이 적응이 되었다. 식사준



일러스트=고은선

비를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무념무상의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일을 하다 정신을 차려보면 일이 다 끝나있었다. 주방일이 힘들지 않으니 남은 시간에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

에 일찍 일어나 최소 2시간 이상 개인기도,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서 한 달 반 내지는 두 달 내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성경 외의 일 반 책도 여러 권 읽었다. 하나님께 힘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주방 팀원들의 배려와 섬김으로 팀원들 간에 큰 갈등도 없었기에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딜

가든 인간관계에서 힘들어지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법인데, 여기서는 지체들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섬기려 하고 배려하려는 자세로 대하다 보니 내가 초반에 많이 힘들어 하였음에도 다들 잘 받아주셔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다. 너무 감사하다. 주방을 섬긴다고 해서 한 학기가 매우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풍성히 누리는 학기가 됐다.

다음 학기면 헤브론신학교대학에서 4년의 사역기간을 채우게 된다. 마지막 학기를 무슨 직임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린다. 주방 직임을 다시 해도 상관없다. 다만 일만 하는 세월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GPNEWS]

여동훈

그림 묵상



십자가를 붙들 때 날마다 이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하신 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사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며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 명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이지 않으셨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뿐.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진짜 속이는 자 사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안 될 거라고 말한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 사랑하는 건 안 돼. 포기해!"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아였던 우리를 아들로, 창기였던 우리를 신부로 회복하시고, 저주가 운명이었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십자가를 붙들 때 날마다 이긴다.

[GPNEWS]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北 주민, “김정은 10년, 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어려워”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독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 주민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름생산과 주민집회에 소집되는 등 동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

한 당국은 무슨 이유에선지 밤중에 주민집회를 조직하거나 맹추위 속에 거름생산에 동원하고 있다. 소식통은 “해마다 북한에서는 새해의 시작을 농촌지원전투인 거름전투로 시작하지만 여태껏 식량문제가 제대로 풀린 적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은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되는데 주민동원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당국의 거름전투 동원에 불만

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년거름생산 준비 작업에는 공장 기업소, 인민반, 학생들까지 동원됐다. 소식통은 “새해 첫날에는 특별경계령이 내려지고 새벽부터 태양상(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한 다음 신년정

치행사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사상 문제에 걸려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할 수 없이 동원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1일 설날을 맞아, 오전 9시부터 각 조직별로 모여 친필서한 전달식

을 가졌는데 최고 존엄이 단 몇 자의 친필서한으로 전체 인민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한데 대해 주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일부 주민들은 친필연하장에서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기

를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주민들은 김정은 집권 10년이 되도록 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더 어려워진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GPNEWS]

北 의료진 진단만 ‘무상’... 중환자도 약 구해와야 투약해줘



▲ 맹추위 속에 거름생산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 출처: 데일리NK 캡처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이 커지면서 북한의 무상의료제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지난해 3월 평양종합병원 준공식 이후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평양종합병원이 완공되면 병원에서 무상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보건 제도 혜택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코로나19 방역 강화 여파

로 평양종합병원 준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관련 증상을 보인 주민들을 격리한 시설에서조차 약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돈 있는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약을 구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들도 돈을 주고 약을 구해오지 않으면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무상의료제도’는 이미 유

명무실화됐으며 코로나19로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에서 무상의료 서비스가 이뤄지는 단계는 의료진의 진단까지이며 약이나 주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되는 의약품이 급감하면서 일명 투약이 더 어려워졌다. 보통 약은 시장이나 각 마을에 있는 약판매점에서 살 수 있고 수입산은 밀수꾼이나 병원 및 약국 관계자를 통한 뒷

거래로 구할 수 있었다. 소식통은 “무상치료제도가 사라지면 김일성 수령님의 사회주의 혁명역사가 부정되는 것과 같다.”면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쉽게 손대지 못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인민에게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 체계가 아니라 정권의 치적 선전에 이용되는 정치적 프레임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다. [G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지워진 드 쿠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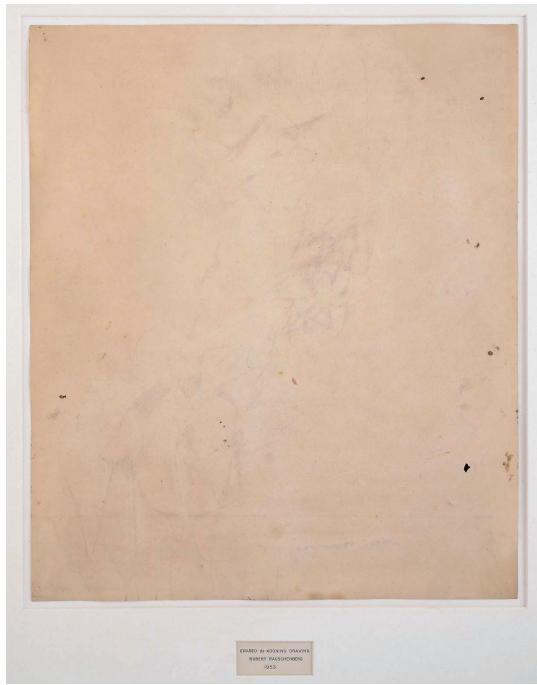
새로운 피조물이라

1950년대의 추상표현주의가 미국 미술의 격을 높였다면, 1960년대에는 팝아트가 그 명성을 뒤이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이 팝아트를 시작한 주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한때 추상표현주의자 빌렘 드 쿠닝의 지도를 받았는데, 드 쿠닝의 존재는 라우센버그의 예술 세계의 바탕이자 극복의 대상이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1953년의 한 작품에서 드러냈다. 드 쿠닝의 연필 드로잉을 구입한 뒤, 이를 지우개로 꼼꼼히 지운 라우센버그는 제목을 <지워진 드 쿠닝>이라고 붙였다. 그의 나이 불과 28세였다. 미술로 표현할 수 있는 극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실험 미술이었다. 스승 드 쿠닝이 폭발적인 감성으로 극단을 보여주었다면, 라우센버그는 이것을 전부 지워 또 다른 극단에 도달했다. 그 후 라우센버그는 “무서운 놈(enfant terrible)”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지우는 데에는 사실 한

계가 있었다. 최선을 다해 지웠건만, 드 쿠닝의 연필 흔적을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했다. 뾰족뾰족한 형체가 아직 ‘라우센버그의 작품’에 군데군데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뒤, 드디어 이 작품을 소장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 지워진 드로잉의 복원에 착수하였고, 2010년 원래의 작품, 즉 드 쿠닝의 작품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거듭남도 똑같다. 무서운 놈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옛 모습을 지우려 최선을 다 해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지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은 힘써 지우는 것, 고작 여기까지다. 몇 주, 몇 년, 아니 평생을 지워도 남아있는 죄 된 본성의 흔적은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이 때문에 믿음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의롭게 여김



▲ 그림설명: 로버트 라우센버그, <지워진 드 쿠닝(Erased de Cooning)>, 1953, 64.1 x 55.2 cm,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좌), 빌렘 드 쿠닝의 연필 드로잉(복원)



을 받았다는 그 진리를 믿어야 한다. 남은 흔적 하나도 없이, 완전한 새것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아니면 구원은 없다. 다시 새로운 해의 시작, 완전한 새것으로 바꿔주신 그 은

해가 매일매일 절실해지기를. [GN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이상윤 미술평론가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이런 위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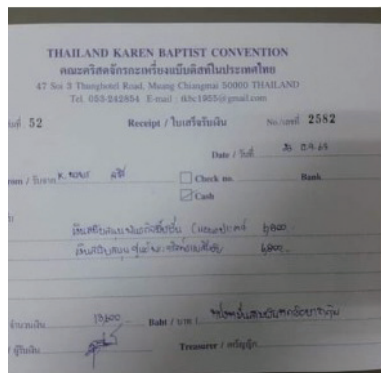
“사랑하는 주님. 이런 위대한 날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나와폰’ 자매의 페이스북 포스트이다. 자매는 그 이유를 사진으로 올렸다. 그것은 그녀가 현금한 50만 원(1만 3600만) 영수증이다. 그녀는 특별 현금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고 있었다.

올해 25살인 ‘나와폰’은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1995년 미얀마의 카렌 지역의 오지의 길가에서 태어났다. 미얀마 군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카렌의 주요 기지들이 함락되었던 시대였다. 만삭이 된 그녀의 어머니는 전투 지역인 마을에서 도망해야 했고 아무 보호 장치도 없는 길에서 나와폰을 낳아야 했다. 일주일을 걸어서 국경을 넘고 태국에 있는 매혹손에 있는 ‘매라모’ 난민 캠프에 도착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그녀는 2017년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을 위한 선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국어 과정을 마치고 2018년 5월에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간 곳은 상주농장이다. 그 사이 2년여가 지났다. 2020년 7월 29일에 그녀를 방문했다. 언제 올 수 있는지 여러 번 질문하던 그녀는 환하게 반겼다. 농장 주인을 만나서 이야

기를 나눴다.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방에서 그녀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그녀가 카렌 교회의 총회선교사역과 신학교를 위하여 각각 5만 원을 하기로 작정한 현금 얘기를 꺼냈다. 아직 그녀의 현금이 총회로 입금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십일조 외에 모두 집으로 보내는데 전달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송금하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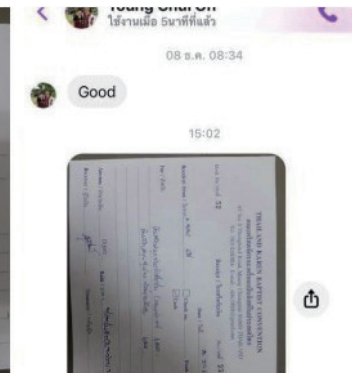


▲ 이주노동자인 카렌족 나와폰 자매가 페이스북에 현금 영수증과 함께 위대한 날이라고 적은 게시물. 제공: 필자

“그러면 제가 오 선교사님의 한국통장으로 송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달인 8월부터 매달 10만 원의 현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12월 28일 총회 사무실에 가서 8월부터 12월까지 보내준 현금 50만 원을 입금했다. 선교사

역과 신학교를 위하여 각각 25만 원씩(6800만) 입금하고, 바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그날 저녁에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영수증을 포스트하고 자신의 마음을 적은 것이다. 이런 위대한 날을 주시며 감사한다고.

그녀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이 떠올라졌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녀는



‘드림의 복’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녀에게 매달 10만 원은 적은 규모가 아니다. 받은 월급 중에서 방세와 식사비 등등을 제하면 대략 150만 원이 남는다. 대부분을 고향에 송금하고 일부는 용돈으로 남긴다. 그 가운데 10만 원을 드린

것이다. 그녀는 ‘드림의 행위’를 부담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라고 증언한다.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가를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녀는 25살의 젊은 여성이다. 그녀의 나이 또래이면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쓰고 싶은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를 위한 헌신의 길이다. 카렌 교회의 선교와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길에 조용하지만 단단히 서 있다. 녹록하지 않지만 그녀는 최선의 드림을 통하여 선교적 삶을 살고 있다.

‘위대한 날(this great day)’이라는 그녀의 고백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가 아니다. 그녀가 드렸기 때문이다. 50만 원이라는 현금을 통한 ‘위대한 날’이라는 이 고백은 선교사인 내게도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확인해 준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같이 보고 나누는 것이다.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드림을 감사함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림’은 위대하다. 사연 많은 25살 자비량 선교사 나와폰의 감사의 고백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GNNEWS]

무익종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12. 23 ~ 2021. 1. 8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구본영 권순호 김나리 김문화 김신애 김애심 김유남 김정희 김혜신 김혜연 노은옥 단현철 문미현 박경희 박성규 박숙자 박신희 신호림 안민자 안수경 양애숙 오금에 우 석원형숙 윤경석 윤미자 윤혜은 은종숙 이남준 이영심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주선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장미자 정금자 조명숙 조형광 차익수 최근희 최정옥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고대교회 김화제일교회 더위심CHURCH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새순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양광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양산교회 오보평강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만교회 주나임교회 처음사랑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